

§ 교회 목표 §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Pilgrim

§ 2022년 표어 §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교회”
(마 22:37-40)

十행 동지침十

- 1. 다시 말씀 앞에(Reconfirm)
- 2. 다시 교회로(Rebuild)
- 3. 모두 함께 기쁨으로(Rejoice)

발행인 : 순달익 목사 발행처 :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51 길 7 전화:(02)558-1106 팩스 : (02) 558-2107 http: www.seoulchurch.or.kr



요한복음 강해

다른 양

(요 10:16-21)

이종윤 원로목사



요한복음 10장 16절에는 ‘다른 양’, ‘한 무리’, ‘한 목자’라고 하는 세 단어가 나옵니다.

1. 다른 양

“또 이 우리에게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요 10:16상)

‘다른 양’이란 문장 전체의 흐름으로 보아 양 가운데 다른 양, 다시 말하면 이방인을 의미합니다. “또 이 우리에게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요 10:16상), 영어성경을 보면 'other sheeps I have'인데 '내게 있어'는 have라고 미래형이 아닌 현재분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다른 양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미래 소망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양들을 이미 손에 쥐고 계신 것입니다.

이들이 누구입니까? 예수님께서서는 당신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여기저기에 있음을 생각 하시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유대 땅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지역, 마케도니아나 로마, 서반아 등 도처에 있음을 생각하시면서 특별히 사도 바울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매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행 18:9-10). 그때 사도 바울은 아직 전도를 시작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성중에 당신의 백성이 많으니 빨리 전도해야 한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백성들이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라면 어째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서는 이미 다른 양을 가지고 있다고 하셨는데 무엇 때문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필요한 것입니까? 사탄은 그리스도의 양을 도적질하려고 지금도 있는 힘을 다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6절에는 매우 중요한 신학적인 문제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영어로 표현하면 ‘I must bring them’ 나는 그들을 마땅히 옮겨야 된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전도는 우리가 해도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그들로 하여금 아버지께로 오게 하는 것은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대를 파송했다고 전도를 하는 것이 아니고 선교사가 파송됐다고 해도 선교사가 선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신다는 말입니다.

주님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우리에게 보여 주고 계십니다. 마땅히, must라는 말은 성경에서 여러 번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해야 되는 일을 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극약

한 환경에 처하여서도 해야 할 일을 반드시 하십니다. 그중에 하나가 택함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를 주님의 품으로 끌어들이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일에 마땅히 주님과 동역자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가라고 하시면 가고, 전하라고 하시면 전하고, 물질을 가지고 복음에 유익하게 사용하라고 하실 때 사용하됩니다. 그리하면 열매는 주님께서 거두십니다.

2. 한 무리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요 10:16중)

그리스도께 부름을 받은 양들은 한 무리를 이루게 되는데 우리도 예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아서 교회라고 하는 한 울타리 안에서 한 무리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신 ‘한 무리’는 조직(organization)이나 건물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목자로 모신 양 무리를 의미합니다.

한 무리를 교회라고 할 때 교회는 반드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사도신경을 인정해야 됩니다. 때때로 성경해석이 조금 다르거나 신앙의 태도가 같지 않은 교파를 대할 때 우리는 그들을 이단이라고 말할 합니다. 그러나 그런 문제는 학자들이 신학을 통해서 연구할 일이고 우리는 그들이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한 형제로 받아 주어야 합니다.

3. 한 목자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요 10:16하)

교회가 한 무리를 이루고 있는 이유가 한 목자를 모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목자장 되시는 예수님 앞에서 우리는 한 양떼를 이루고 함께 풀을 공급받게 됩니다.

목자가 한 분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연합의 근거가 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그 안에서 모든 것을 이루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 이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 중에 어떤 자들은 귀신들린 자의 말이라고 하고 또 어떤 자들은 아니라고 합니다(요 10:19-21).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현상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음성을 들으면 두 부류로 나뉘게 되는데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들과 부인하는 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부류에 속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두말할 것도 없이 주님을 영접하는 쪽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복음을 듣고 주님을 영접한 사람은 주님의 양입니다. 주님의 양은 주님의 우리로 부름을 받고 주님을 목자장으로 섬기며 순종하고 따라 갑니다.

8월 '서울가족 토요새벽기도회'

8월 6일(토요일) 오전 6시
자녀를 위한 축복기도의 시간도 함께

8월 "서울가족 토요새벽기도회"를 8월 6일 (토)에 갖는다. 또한 기도회를 마친 후에는 각 가정의 자녀를 위한 손달의 담임목사의 축복 기도 순서가 있다. 매월 첫 번째 토요일 새벽에는 온 성도들이 교회에 모여 함께 기도함으로 한 달을 시작하기 바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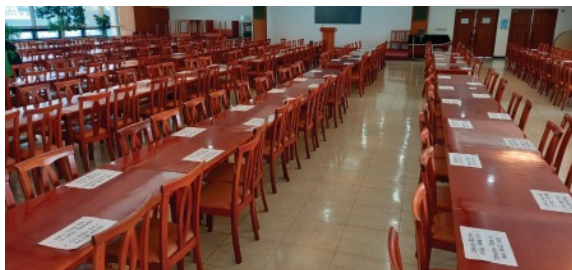


2022 하반기 장학금 모집 - 오늘 마감 -

신청 기간	2022년 7월 17일 - 7월 31일		
신청 방법	구비서류 완비하여 서울교회 사무국에 제출(담당자: 정승균 집사)		
장학금 구분	일반 장학금	브리스길라 장학금	송암 장학금
추천대상	서울교회 등록된 지 1년 이상 된 대학생, 지체부자유자 및 생계지원을 요하는 대학생	신학대학교(대학원) 재학생	교역자·선교사 및 직원의 자녀인 대학생
	학업성적이 우수하고(직전 학기 학점 평균 B학점 이상), 신앙생활 또는 봉사에 모범인 자		
구비서류	①교구 또는 봉사부서 추천서 ②재학(예정)증명서 ③성적증명서 ④자기소개서 (또는 신앙간증문)	①교구 또는 봉사부서 추천서 ②재학(예정)증명서 ③성적증명서	①교구 또는 봉사부서 추천서 ②재학(예정)증명서 ③성적증명서
선발기준	서류를 완비하여 제출한 자 중에서 장학위원회 심사를 통해 장학금 수여 대상자 최종 선발 (서류 미비시 대상에서 제외).		
지급예정일	2022년 8월 28일(주일) 찬양예배 시 (선발된 장학생은 반드시 찬양예배에 참석하여야 함)		

코로나 확산에 따라 발열 체크 진행

교회는 코로나가 다시 확산됨에 따라 발열 체크를 다시 진행하고 있다. 교회 들어오실 때 성도들은 모두 발열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란다. 또한 8층 만나홀에서 점심 식사를 할 때에도 거리두기 지정좌석에 앉기 바란다.



온라인 헌금을 위한 봉헌 계좌

서울교회 통장 계좌는 다음과 같다.
* 신한은행 대치동 지점
100-034-868968
(대한예장 서울교회)

광고

신속한 교회 행정을 위하여 이사 등 주소 변경 시는 즉시 사무국이나 교구목사에게 알려주시기 바란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교회 청년들 중, 군에서 복무 중이거나 입대 예정인 청년과 대상 청년의 가족을 비전2030 도고팀에 알려주기 바란다.

군대에 있는 동안 좋은 상관과 동료들을 만나고 저들의 신앙과 안전을 위해 비전2030 도고팀은 뜨겁게 기도하고 있다.

- 비전2030 도고팀장 고선옥 권사
010-3344-6400
- 기도 대상자들

권동영 김중훈 김재용 김요한 이상민 한지원 심중규 문영훈 이준우 정건 유성근 경건웅 이진우 유동연 심준규 허성강 장하람 최윤학 이강현 백승규 중위 황수지 소위 안지훈 중위 이연희 대위 이예희 하사 문창희 중사 김정균 소령

예배위원 모집

주일 1, 2, 3부 예배, 찬양예배 안내 위원
주일 1, 2, 3부 봉헌 위원을 모집한다.
* 문의 : 채교천 집사 (010-6444-2502)

식당이용 안내

- 배식 시작 : 오전 11시
- 배식 종료 : 오후 1시 10분
- 모든 식기 반납 : 오후 1시 25분

* 잔반을 남기지 마세요.
음식물 쓰레기 배출을 줄이고 설거지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환경과 남을 배려하는 서울교회 교인들이 됩시다.

교회 내에서
일회용품 사용을 줄입니다!





'존경받는 나라 만들기 운동' 상임고문단 국민일보와의 대담

선진국 된 한국, 지구촌 고난 직시하고 적극 도움주자

다음은 국민일보 7월 27일(수)자 기사를 발췌, 요약정리 한 것이다(편집자 주)

지금 기독교계는 원로들을 중심으로 '존경받는 나라 만들기 운동'이 조용히 펼쳐지고 있다. 이들은 선진국으로 돌입한 대한민국이 이제는 해외 저개발 국가를 지원하고 국제적으로 존경받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대한민국은 지구촌 곳곳의 고난을 직시하고 적극적인 도움을 펼쳐야 한다고 했다. 이에 국민일보는 '존경받는 나라 운동' 상임고문단(이종윤 목사, 김진호 목사, 서경석 목사)과 대담을 가지며 이들이 앞으로 어떤 사역을 할 것인지 등에 대해 들었다

존경받는 나라 만들기 운동 본부의 상임고문인 이종윤 목사는 '존경받는 나라 운동'이 처음 만들어진 계기를 다음과 같이 말했다.

"지금 한국 교회에는 세례 교인이 20명도 안 되는 교회 수가 한국 교회 전체의 65%가 된다고 합니다. 한국 교회가 이렇게 미약한 줄은 미처 몰랐습니다. 얼마 전에 서경석 목사님께서 작은 교회 목사님들을 모아놓고 세미나를 했습니다. 작은 교회들이 서로 힘을 모아 지역에서 나눔과 섬김의 사역을 하자는 세미나였습니다. 이 모임 이후 원로목사님들이 모여서 이제는 어른들이 먼저 앞장서서 존경받는 나라 운동을 하기로 마음을 모으고 기독교계가 중심이 되어 지난 2월 25일(금)에 출범대회를 가졌습니다. 대한민국을 존경받는 나라로 만들려면 정부도 강한 의지가 있어야 하지만 이를 위한 국민운동이 강력하게 전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라고 '존경받는 나라 운동'의 출범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김진호 목사님은 "지금까지 한국은 잘 사는 나라를 향해 달려왔지만, 이제부터는 정부와 국민이 손잡고 존경받는 나라를 향해 달려가서 6·25전쟁 때 많은 나라들이 도와준 것을 보은하는 차원에서 열심히 가난한 나라를 도와서 전 세계가 주목하고 존경하는 나라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1)공적개발 원조(ODA)가 지금보다 더 올라가야 하고 (2)가난한 나라를 돕는 국제개발 비정부기구(NGO)가 많아져야 하고 (3)가난한 나라 돕기가 국가 목표가 되어 국가적으로 열심히 가난한 나라를 도우므로 세계의 모든 가난한 나라들로부터 "가장 존경하는 나라가 코리아"라는 말이 들려오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면 한국 경제도 최고로 부흥하고 한국의 국격도 올라가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나라가 될 것



“

대한민국을
존경받는 나라로 만들려면
정부도 강한 의지가 있어야 하지만
이를 위한 국민운동이
강력하게 전개되어야 한다고

...

'기독교운동본부'는
각 시·도단위에서
원로목사님들이 중심이 되어
큰 교회와 작은 교회가 함께 하는
기독교공동체 만들기 운동을 할 예정

...

원로목사님은
각 시·군·구에서
작은 교회 목사님의 모임이
만들어지도록 돕고,
지역의 큰 교회가
작은 교회들의
나눔 운동을 돕게 하는 것

”

입니다."라며 지금 우리나라가 해야 할 일을 지적했다. 또 문창선 목사님은 "'존경받는 나라 운동'의 가장 중요한 연례행사는 매년 봄에 ODA(공적개발원조) 증액을 위한 '가난한 나라 돕기 행진'입니다. 이 행진에 매년 수만 명이 참여하면 존경받는 나라 운동도 크게 흥

보되고, 그러면 정부도 ODA를 높일 명분을 얻을 것입니다."라고 했다. 이종윤 목사님은 대한민국이 존경받는 나라가 되려면 민과 관이 공고한 협력관계가 되어야 할 것이라며 정부가 미얀마 민주화 운동 돕기나 우크라이나 돕기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지방대학 살리기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고도 했다.

한편 지난 6월 24일(금)에는 '존경받는 나라 운동' 안에 '기독교 운동 본부'가 출범했는데 '기독교 운동 본부'는 각 시·도단위에서 원로 목사님들이 중심이 되어 큰 교회와 작은 교회가 함께하는 기독교공동체 만들기 운동을 할 예정이다. 원로목사님은 각 시·군·구에서 작은 교회 목사님의 모임이 만들어지도록 돕고, 지역의 큰 교회가 작은 교회들의 나눔 운동을 돕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작은 교회 목사님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무료식당도 운영하고, 푸드뱅크, 협동조합 활동을 열심히 하도록 돕고, 원로목사님은 작은 교회 목사님이 초·중·고등학교 나눔 강사로 가서 나눔 교육을 하고 학교마다 청소년 봉사단을 만들어 활동하고 방학 때에는 해외 봉사도 떠나도록 도우려고 한다. 이처럼 큰 교회와 작은 교회가 협력하여 지역에서 기독교공동체가 활성화되면 교회도 부흥할 것으로 기대한다.

'존경받는 나라 운동'은 지방대학 살리기 운동도 하고 있다. 지금 지방대학은 입학생 부족으로 고사 위기에 처해 있는데, 존경받는 나라 운동은 그간 '외국 학생이 한국 대학에 입학하면 그 부모에게 취업비자를 주자'는 캠페인을 계속해 왔고, 최근에는 '지방대학 살리기 교수 연합'을 창립하여 현재까지 7개 대학의 70명의 교수가 회원가입을 한 상태이다. 그리고 앞으로 이 교수 연합을 수천 명의 회원을 갖는 단체로 만들어 지방대학과 지방 경제를 살리고, 외국의 우수한 두뇌를 영입할 것이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이종윤 목사님은 '존경받는 나라 운동'은 우크라이나 돕는 일을 위해 많은 토론을 했고, 대다수가 지지해서 우크라이나 돕기 모금을 했다고 하면서 한국은 6·25전쟁 때 16개국에 참전해서 살아난 나라이므로 우크라이나 돕기는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고 했다.

이들은 '존경받는 나라 운동은 제2의 새마을 운동'이라고 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존경받는 나라 운동'에 들어와서 적극적으로 활동하려는 사람은 운영위원으로 모셔서 활동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 것이라고 했다.

요약정리 : 허숙 권사(편집부)

일본 선교보고를 마지막으로 2022 상반기 선교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내심을 받은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을 위해 기도하는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온 성도들이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선교보고 - 일본

164년 선교역사에도 복음의 불모지 일본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코로나19전 우에노공원 노숙자 협력사역



코로나19후 신주쿠 어린이식당사역

1. 선교지 상황 보고 (mission field)

일본 동경 코로나19 확진 환자 수(누적)는 1,302,684명입니다. 그러나 신규 확진 자가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신종 변이 바이러스 문제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생필품 물가가 급등하여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지진이 자주 일어나서 후지 산 화산 폭발과 동경의 직각 대지진에 대한 불안으로 정부는 시뮬레이션과 피해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어려서부터 남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된다는 교육을 받아서 평상시에도 친하지 않으면 말을 걸기가 어려운데 코로나19와 경제 침체로 개인주의가 팽배하여 전도하는데 더욱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일본 기독교단의 1,700개 교회 예산이 30% 감소했으며 성도의 평균 연령이 70세 고령화로 교회의 존립 위기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또한 비대면으로 주일예배만 드리고 있어서 신앙성숙의 문제와 결혼식과 장례식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고령화로 비대면 화상 예배를 드리는데도 어려움이 있어서 주일 설교문을 작성하여 토요일에 성도의 집 포스트에 넣어두면 주일에 성도님이 설교문을 보면서 혼자 예배를 드리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일본의 기독교인 수는 약 55만 명, 일본 전체 인구 약 1억 3천만 명 가운데 0.4%에 불과합니다. 일본에는 800만의 야스쿠니 관련 신과 불교에서 파생된 200만의 잡신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또 이러한 신도문화는 예수그리스도 역시 유일신이 아닌 800만 개의 신 가운데 하나로 흡수해 버린 것이 현실입니다.

일본인들은 전통적으로 유일신을 부정합니다. 이러한 종교관으로 인해 800만 개의 토속신들 중에서도 몇몇 신을 중복 선택해 신봉하는 일본인들이 대부분입니다. 일본 국민은 800만 개의 신을 믿고, 다신교로 우상의 나라

입니다. 또한 일본은 신도도 있고, 불교도 있는데, 이것이 국가 종교이고 가정 종교라서 남들에게 종교가 있다고 말을 하는데, 본인의 가치 신념체계로는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전체 인구의 0.4%도 되지 않는 복음화율과 이 중에서도 유일신을 인정하는 크리스천은 절반도 되지 않는 일본은, 164년의 선교역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복음의 불모지입니다. 그러나 경제가 성공하여 선진국은 되었으나 복음 선교가 절실히 필요한 곳일 뿐만 아니라, 한국과 일본은 지정학적 외교상 매우 중요한 위치의 나라이기에 더욱더 기도하고 선교해야 할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2. 교회 사역

일본기독교단 동경글로리아교회는 세례교인 9명과 구도자 8명으로 17명입니다. 코로나19이지만 매주 목요일 10시에 기도메뉴얼로 3-4명이 성경공부를 하며 기도와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시부터는 식사 교제와 전도를 하고 마칩니다.

매주 주일에는 오전 10시 30분부터 주일예배를 5-8명이 드리고 오후에는 기도메뉴얼로 공부하고 기도와 교제를 하고 마칩니다.

코로나19로 대면 예배가 적은 수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감사함으로 매주 성경공부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새벽기도는 현재 일본기독교단 2층 채플실을 사용하고 있어서 드릴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교단 건물은 아침 8시부터 저녁 8시까지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여 집에서 매일 새벽 5시에 아내와 함께 새벽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전도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일주일에 한번 일회용 마스크를 교회 안내지와 포장하여 각각의 집 포스트에 넣고 길에서 만나는 분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3. 어린이 식당 사역

2012년 NHK방송 발표에는 선진국인데 6명 중 1명이 학교 급식을 못 먹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유는 싱글맘 가정이 가장

많으며 부모들의 무책임(빠칭코와 술과 폭력) 가정으로 아이들의 학교 급식비를 못 내서 학교 급식을 먹지 못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어린이 식당 사역은 현재 신주쿠 와카마츠가와다 지역센터를 빌려서 코로나로 한 달에 2번 둘째, 넷째 월요일 오후 4시부터 7시까지 공부(한글, 영어, 문화 등)와 무료 식사 제공과 선물을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15-20명 정도의 아이들이 부모나 옆집 아줌마와 같이 와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갑니다. 어린아이들에게 빵만이 아니고 복음을 전하려고 식사 전에 기도하고 식사를 하게 합니다. 종교색을 내면 안 되어서 지혜롭게 아이들에게 맞는 쉽고 재미있는 성경인물 중심으로 이야기하며 한글을 가르칠 때에도 전하고 있습니다.

개중에는 크리스천 아이들이 한두 명 있어서 아이들을 통한 부모님의 전도를 하도록 섬기고 있습니다.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4. 노숙자 협력 사역

코로나 전에는 우에노 공원에서 설교 봉사 및 식사 봉사 협력 사역을 하였습니다만, 코로나19 이후로 우에노 공원에 노숙자 사역이 도시락만 나누어주는 사역만 하여 코로나19에도 노숙자 식사를 하는 신주쿠 3초메 임마누엘무지개교회에서 매주 수요일 새벽 6시부터 8시까지 일본어 설교와 식사 배식 봉사 협력 사역을 하고 있으며 푸드뱅크에서 음식을 받아 노숙자 교회에 음식을 제공하는 협력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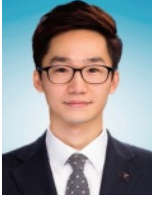
기도제목

1. 동경글로리아교회 동경 아다치 지역 개척과 도영주택 입주를 위하여
2. 성도들의 신앙성숙과 건강을 위하여
3. 어린이 식당과 노숙자 협력 사역을 위하여
4. 일본무지개교회 선교회를 위하여
5. 아내의 사역과 가족의 건강과 성령충만을 위하여

허창범 · 현미순 선교사

천국시민 양성 - 유년부 여름성경학교를 마치고

기적의 세대! 우리는 원더키즈



정성우 집사
(유년부 부감)

하나님의 은혜로 2022년 유년부 여름성경학교가 은혜 중에 마무리되었습니다. 친구 초청잔치부터 시작되어 여름성경학교까지 호흡을 이어간 이번 유년부 행사는 우리 유년부 아이들의 순수한 믿음을 엿볼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친구 한 명 전도하기 어려운 지금 시대에 전도하고 싶은 친구를 위해 기도하고 초청장을 전달하여 함께 행사에 참석하고, 또 수련회까지 그 마음을 전했던 우리 유년부 아이들의 모습은 이번 수련회의 주제였던 '믿음으로 승리하는 기적의 세대! 우리는 원더키즈!' 그 본연의 모습이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이번 성경

학교에서는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야기를 통해 죄, 유혹, 시련, 믿음, 승리의 모습을 다양한 내용으로 풀어냈습니다. 그 중 인상 깊은 프로그램이 있었다면 아이들이 하나님의 원더키즈 요원으로 계약을 맺고 활동하지만 계약을 어겨 그 댓가로 '계약의 팔찌'를 강제로 뺏기고 '죄의 팔찌'를 차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선생님들이 강제로 팔찌를 뺏으니 당황하며 놀라는 아이들이 있었고, 나는 그 죄를 짓지 않았다며 항의하는 아이들도 있었는데 이런 상황이 아이들에게 조금은 신선한 자극이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프로그램을 통해 죄란 무엇이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지를 알아가고, 거절하기 힘든 유혹의 상황에서 믿음의 자녀들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진지하게

배우는 아이들의 모습이 참 인상 깊었습니다. 함께 찬양하고 말씀 듣고 공동체 활동을 하며 진행된 이들 동안의 성경학교는 코로나의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무사히 마무리 되었습니다.

수련회를 준비함에 있어 목사님과 부장 집사님, 유년부 선생님들의 수고와 헌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도와 다양한 방식으로 후원해 주신 많은 성도님들이 계셨습니다. 선생님들과 도움을 주신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만큼 다음세대를 사랑하는 그 큰 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도 더욱 기도하며 유년부를 통해 아이들이 더욱 예수님의 사랑을 알아갈 수 있게 목사님과 선생님들을 도우며 섬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초등부 여름성경학교도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담당교역자와 교사들 그리고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사랑부 여름수련회도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담당교역자와 교사들 그리고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동 정

■ 식사 제공 : 교회 제공

전교인 성경읽기표

교구(부서):

이름:

일 자	요일	1년 1독	확인	1년2독	확인
8월1일	월	사 18-22		신 1-7	
8월2일	화	사 23-27		신 8-14	
8월3일	수	사 28-32		신 15-22	
8월4일	목	사 33-36		신 23-29	
8월5일	금	사 37-40		신 30-34	
8월6일	토	사 41-43		수 1-8	
8월7일	주일	사 44-47		수 9-14	

서울 주간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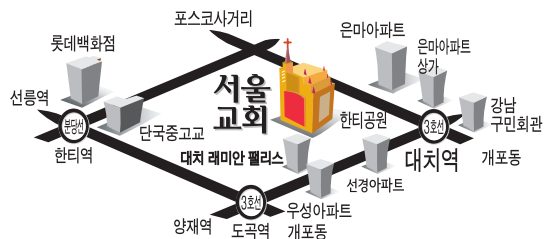
- 주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한 여름 무더위를 몸과 마음이 평안과 강건함 가운데 이겨내며,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성도 되게 하소서.
2. 서울교회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공동체로 아름답게 회복되어 천국시민 양성, 만민에게 전도, 빈약한 자 구제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소서.
3.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소멸되게 하시고, 세계적인 경제불황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우크라이나를 비롯하여 세계 여러 곳의 전쟁과 분쟁이 종식되고 평화가 임하게 하소서.

■ 예배 및 집회

구 분	시 간	장 소	
주 일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9시	본당
	II 부 예 배	오전 11시	
	III 부 예 배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오후 4시 30분	
수 요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11시	본당
	II 부 예 배	오후 7시	웨스트민스터 홀
새 벽 기 도 회	오전 5시 30분(일 - 토)	본당	

■ 교회 오시는 길



■ 서울교회QR코드

